



승인(협의)번호
제 772002호

2018년 기준 경상북도 및 의성군 사회조사 결과

2019. 12.



의 성 군
(홍보소통담당관)

2018년기준 경상북도 및 의성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 사회조사 결과표 작성을 통해 군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 삶의 질 및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I 조사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 **작성주기** : 1년
- **조사목적** :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군민들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지역균형개발, 복지시책추진 등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60개 표본 조사구 내 720가구 가구주 및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부문**
 - 공통항목 : 10개 부문* 43개 문항
 - 의성군 자율항목 : 7개 문항
 - * 10개 부문 : 가구와 가족, 교육, 안전, 환경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 **조사기간**
 - 일 시 : 2018. 9. 3. ~ 9. 17.(15일간)
 - 기준시점 : 2018. 9. 3. 0시
 - ※ 질문지의 지난 1년 동안은 2017. 9. 3.~ 2018. 9. 2.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통계표상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을 더한 수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가구와 가족, 건강]

- **(부모 부양 책임)** 부모 부양 책임자는 부모님 스스로가 39.6%로 비율이 가장 높음
- **(미취학 자녀 비율 및 보육방법)**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배우자 순으로 높았음
-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전년도 대비 자녀 비율이 7.1%, 형제 자매 5.7%, 배우자형제자매 0.4%, 전반적 7.7% 증가함

[교육]

- **(가구 월평균교육비)** 초등학생, 중학생에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는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2.8%로 가장 높고, 경제력 부족이 1.5%로 가장 낮음
- **(교육 형평성)**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였으며, 교육비 부담이 68.4%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임

[소득과 소비, 환경]

- **(가구월평균 소비 지출액)**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00만원 미만이 51.8%로 가장 높음
-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비율)** 소득만족도는 26.3%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소비생활에서는 28.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노동]

- **(근로여건 만족도)** 취업자의 근로여건에 대해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비율이 43.8%로 가장 높고, 장래성에 대한 만족비율이 38.9%로 가장 낮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정책)**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응답한

비율은 27.2%인 반명 나빠질 것이다 응답 비율은 21.7%대비 5.5% 높음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 **(환경체감도)** 환경체감도는 전체 항목에서 좋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소음, 진동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71.6%임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만족도)**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도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안전환경 : 동네주민에 대한 견해)** 동네주민에 대한 견해에서는 범죄발생 신고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비율로 71.4%로 가장 높음
- **(평소 생활속 시간압박의 체감)** 평소 생활속 시간압박은 여자보다 남자가 대체로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통합]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시간)** 봉사활동 참여율은 50-59세 계층이 2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49세 22.8%순으로 나타남
- **(지역민으로서 소속감)** 의성군에 대한 소속감은 68.5%로 도내 평균보다 다소 높음
- **(도정/행정서비스 만족도)** 도정정책 만족도는 만족 37.7%로 불만족 10.4%대비 27.3% 높은 것으로 나타남

III 향후 계획

□ 결과 공표

- 시 기 : 2019. 12월중
- 방 법 : Kosis, 의성군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등
- 주 기 :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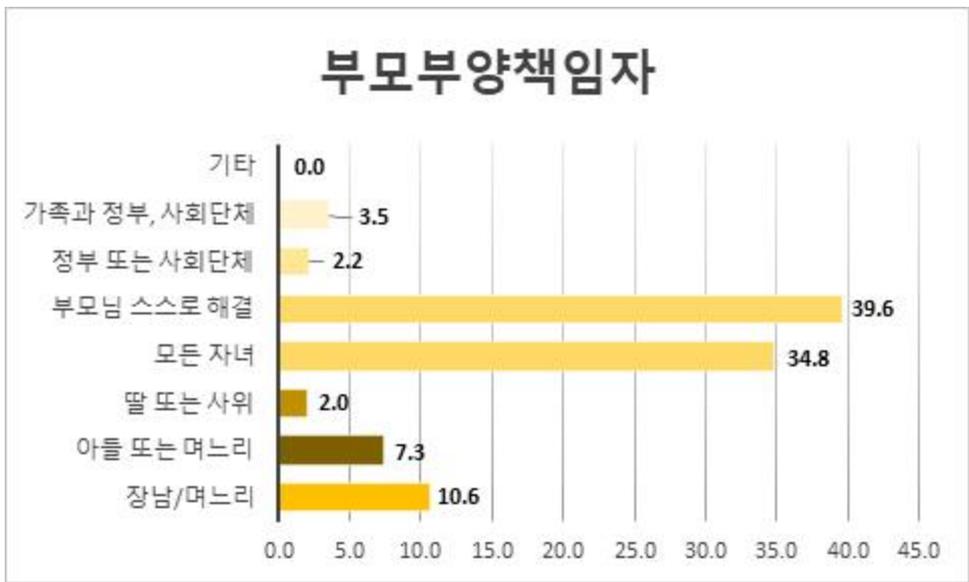
□ 통계DB 반영 : 2019. 12월중

I 가구와 가족

1. 부모 부양 책임

부모 부양 책임자는 <부모님 스스로>가 39.6%로 비율이 가장 높음

- 현재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님 스스로> 부담한다는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고, 전년도에 비해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3.8%으로 증가하였음
- 가족들 중에는 <모든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이 34.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장남/ 며느리>가 10.6%로 높았음



(단위 : %)

구분	장남/ 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사위	모든 자녀	부모님 스스로	정부/ 사회단체	가족/정부/ 사회단체	기타
2017	21.9	8.7	1.7	14.8	35.8	-	-	17.7
2018	10.6	7.3	2.0	34.8	39.6	2.2	3.5	-
(증감)	-11.3	-1.4	+0.3	+20.0	+3.8	+2.2	+3.5	-17.7
29세 이하	16.7	-	-	-	83.3	-	-	-
30-39세	12.0	8.0	-	20.0	68.0	-	-	-
40-49세	25.9	3.5	1.7	24.1	48.3	1.7	3.5	-
50-59세	11.5	9.0	2.5	47.5	24.6	4.1	4.9	-
60-69세	14.1	9.0	3.9	42.3	21.8	1.3	5.1	-

2. 미취학 자녀 비율 및 보육방법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배우자> 순으로 높았음

-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배우자>도 21.4%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음
-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의 <미취학 자녀 비율>이 10.1%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감소할수록 미취학 자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미취학 자녀 비율	보육방법						
		본인/ 배우자	부모/ 친인척	친인척 외 개인	어린이 집	유치원	학원	기타
2017	-	21.9	3.1	-	68.8	6.3	-	-
2018	2.5	21.4	7.1	7.1	57.3	7.1	-	-
(증감)	+2.5	-0.5	+4.0	+7.1	-11.5	+0.8	-	-
취업자	3.5	23.0	7.6	-	61.6	7.6	-	-
실업·비경제활동	0.4	-	-	100.0	-	-	-	-
100만원 미만	0.3	-	-	-	100.0	-	-	-
100-200만원	1.5	-	50.0	-	50.0	-	-	-
200-300만원	5.2	24.8	-	-	50.0	24.8	-	-
300-400만원	7.3	33.0	-	-	67.0	-	-	-
400만원 이상	10.6	24.8	-	24.8	50.0	-	-	-

3.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전년도 대비 <자녀> 만족비율이 7.1%, <형제자매> 5.7%, <배우자형제자매> 0.4%, <전반적> 7.7% 증가함

□ 가족관계 만족도 <자녀>에 대한 만족비율이 74.8%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부모>에 대한 만족비율이 15.5%로 가장 낮았음. <전반적>에 대해 만족도 비율이 7.7%로 전년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성별에서는 <전반적 가족관계>에서 만족도 비율이 남성이 더 높았음



(단위 : %)

구분	배우자와 관계	자녀와 관계	자기부모와 관계	배우자 부모와 관계	형제자매와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	전반적 가족관계	
의성균	2017	65.2	67.7	52.1	48.6	39.6	37.1	43.5
	2018	55.4	74.8	28.9	15.5	45.3	37.5	51.2
	(증감)	-9.9	+7.1	-23.2	-33.1	+5.7	+0.4	+7.7

II 교육

1. 가구 월평균교육비

초등학생, 중학생에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지출 평균금액은

- 중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소득 '300~400만원'가구는 56.7만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0만원을 지출
-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대졸이상'가구는 33.6만원 지출한 반면 '초졸이하'는 5.3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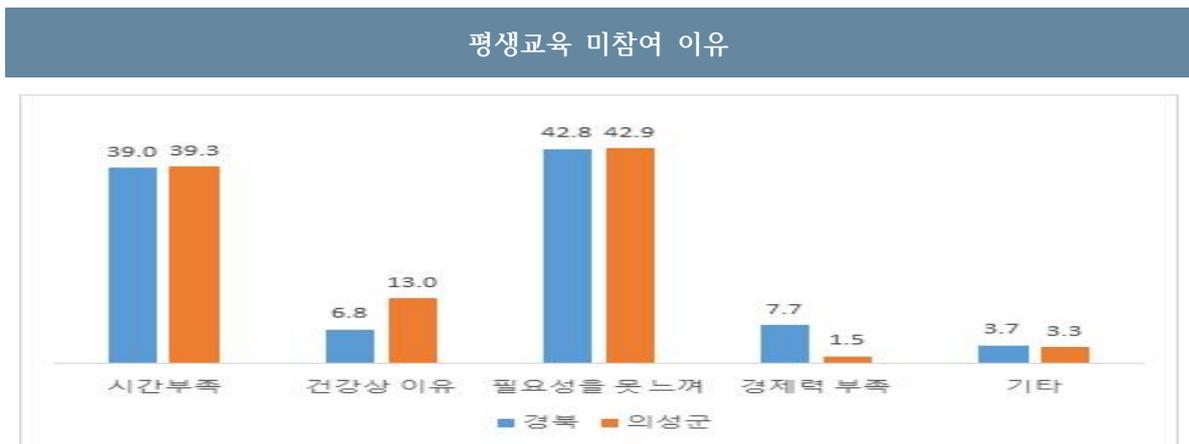
구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고등학생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8	16.3	9.4	23.0	33.3	8.0
남	16.3	10.0	21.7	31.8	8.0
여	-	-	37.0	50.0	-
초졸이하	-	7.0	5.3	-	-
중졸	-	-	-	-	-
고졸	10.0	3.0	16.6	23.8	10.7
대졸 이상	35.0	15.0	33.6	52.5	-
100만원 미만	70.0	-	10.0	-	-
100-200만원 미만	20.0	7.5	23.7	35.0	24.0
200-300만원 미만	-	11.3	5.5	13.3	5.0
300-400만원 미만	20.0	1.3	33.5	56.7	-
400만원 이상	6.7	15.0	27.5	30.0	10.0

2.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는 『필요성을 못느껴』가 42.8%로 가장 높고, 『경제력 부족』이 1.5%로 가장 낮음

- 도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가 42.8%로 가장 높고, 기타를 제외하고 「건강상 이유」가 6.8%로 가장 응답비율이 낮음

- 의성군의 경우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42.9로 가장 높고 이어 「시간부족」 39.3%, 「건강상의 이유」 13.0%, 「경제력부족」 1.5%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성을 못느껴서」비율은 남성이 43.4%로 여성 42.5%에 비해 0.9%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졸은「필요성을 못느껴서」45.0%, 「시간부족」43.0% 순으로 나타남
 - 대졸이상은 「필요성을 못느껴서」61.0%, 「시간부족」34.7%, 「건강상 이유」3.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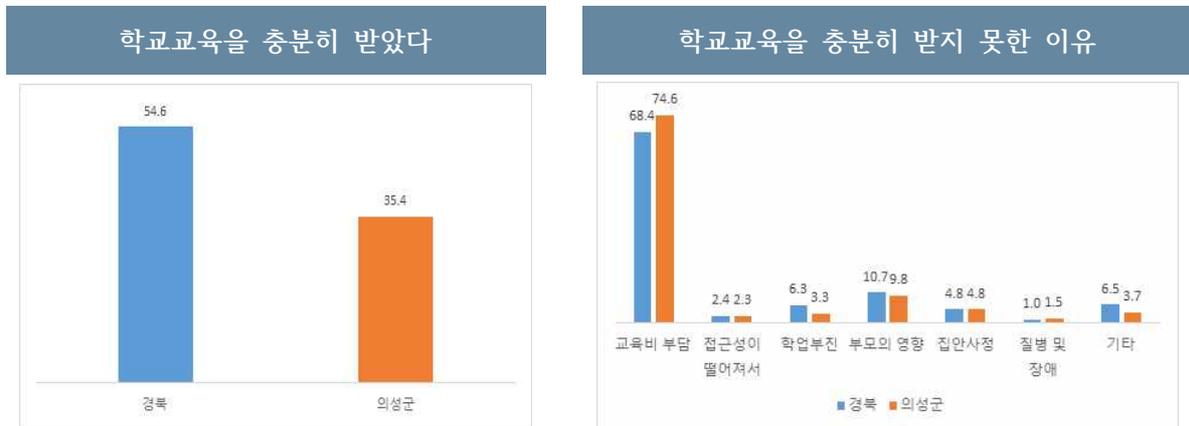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시간부족	건강상 이유	필요성을 못느껴	경제력 부족	기타
경북	39.0	6.8	42.8	7.7	3.7
의성군	39.3	13.0	42.9	1.5	3.3
남	40.1	11.0	43.4	2.0	3.5
여	38.5	14.9	42.5	1.0	3.1
초졸이하	31.1	26.8	36.0	2.0	4.1
중졸	43.0	7.2	45.0	2.3	2.5
고졸	51.7	4.2	38.3	1.1	4.7
대졸 이상	34.7	3.3	61.0	0.4	0.6

3. 교육 형평성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였으며, 「교육비 부담」이 68.4%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임

- 도내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이고, 「교육비 부담」으로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음.
- 의성군의 경우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4%이고, 「교육비 부담」으로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6%로 가장 높음
 - 「교육비 부담」74.6%, 「부모의 영향」9.8%, 「집안사정상」4.8%, 「학업부진」3.3%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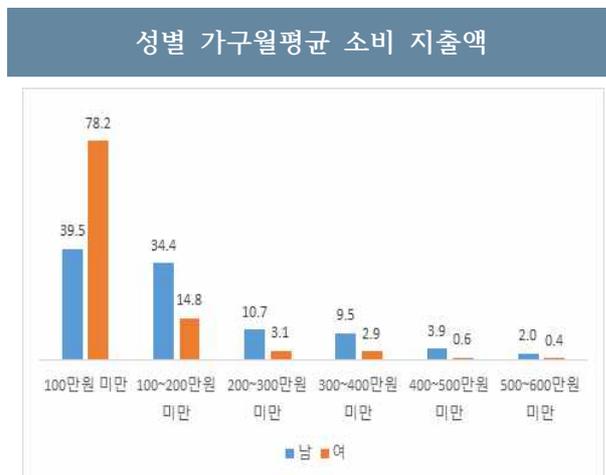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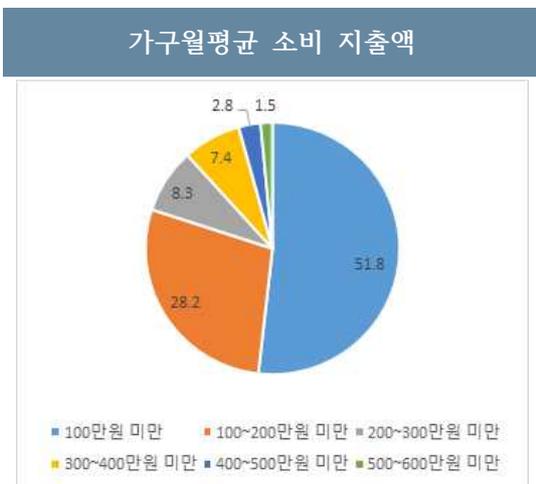
구분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						
		교육비 부담	접근성이 떨어져서	입학실패, 학업부진	부모의 영향	집안 사정상	질병, 신체적 장애	기타
경북	54.6	68.4	2.4	6.3	10.7	4.8	1.0	6.5
의성군	35.4	74.6	2.3	3.3	9.8	4.8	1.5	3.7
남	40.9	77.7	2.5	5.5	2.30	3.8	2.7	5.5
여	30.9	72.4	2.2	1.7	15.0	5.6	0.6	2.5
100만원 미만	22.7	70.9	1.3	1.50	14.8	8.5	2.6	0.3
100~200	25.8	81.7	3.7	3.8	6.2	3.5	1.1	-
200~300	46.7	78.4	4.4	6.0	4.4	4.2	1.3	1.3
300~400	56.7	68.7	2.4	2.2	13.5	1.4	-	12.1
400만원 이상	51.8	66.9	-	5.0	6.6	-	-	21.4

III 소득과 소비

1. 가구월평균 소비 지출액

가구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00만원 미만>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00~200만원 미만> 28.2%, <200~300만원 미만> 8.3%등의 수준으로 나타남

- 가구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00만원 미만>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의 소비지출액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음
 - 성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남성 비율은 39.5%로 여성 78.2%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100만원 미만> 응답 비율은 100%로 가장 높았음
 - <100만원 미만> 응답 비율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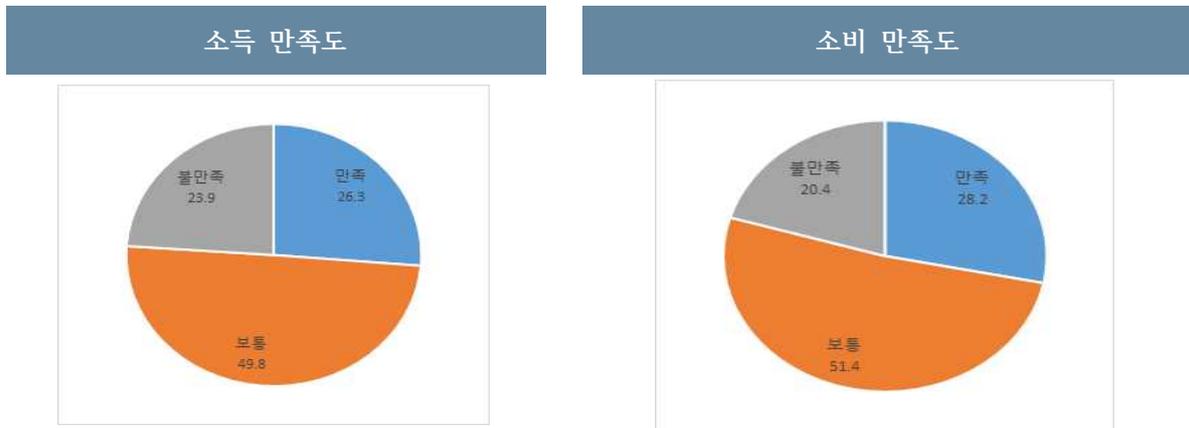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2018	51.8	28.2	8.3	7.4	2.8	1.5
남	39.5	34.4	10.7	9.5	3.9	2.0
여	78.2	14.8	3.1	2.9	0.6	0.4
29세 이하	100.0	-	-	-	-	-
30-39세 이하	8.3	58.3	8.3	16.7	8.3	-
40-49세 이하	12.8	33.3	18.0	20.5	10.3	5.2
50-59세 이하	23.7	39.5	13.2	15.8	4.4	3.5
60세 이상	67.9	22.1	5.8	2.5	1.1	0.5

2.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비율

<소득만족도>는 26.3%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소비생활>에서는 28.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여부>에서는 남성이 92.8%로 여성 76.1% 대비 16.7%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만족도>는 만족 26.3%, 보통 49.8%, 불만족 23.9%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40~49세 이하 계층이 43.3%로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세이상 계층이 21.0%로 가장 낮았음
-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 28.2%, 보통 51.4%, 불만족 20.4%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의 만족 비율이 44.4%로 가장 높고, 고졸 34.7%, 중졸 20.1%, 초졸이하 17.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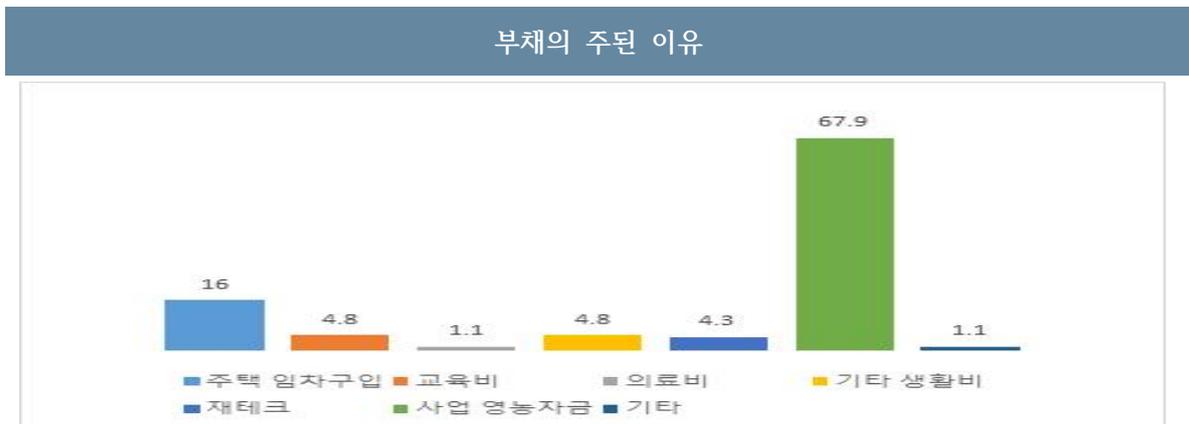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소득 여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있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8	83.6	26.3	49.8	23.9	28.2	51.4	20.4
남	92.8	25.6	49.8	24.6	29.9	49.5	20.7
여	76.1	27.0	49.7	23.3	26.8	52.9	20.3
29세 이하	71.4	26.7	53.3	20.0	47.6	47.6	4.8
30-39세 이하	72.5	37.9	48.3	13.8	35.0	52.5	12.5
40-49세 이하	84.8	43.3	44.8	11.9	44.3	44.3	11.4
50-59세 이하	81.9	29.1	45.4	25.6	30.5	50.5	19.1
60세이상	87.1	21.0	52.1	26.9	21.8	53.0	25.2
초졸이하	86.7	17.8	51.1	31.1	17.6	55.4	27.0
중졸	83.9	20.2	56.2	23.6	20.1	51.3	28.5
고졸	79.3	31.6	48.7	19.7	34.7	51.1	14.3
대졸 이상	83.5	39.9	43.9	16.1	44.4	44.6	11.0

3. 부채여부 및 부채의 주된 이유

가구의 29.6%가 가계에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 영농자금>이 6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 가구비율>은 29.6%였으며, 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 영농자금>이 6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택 임차구입> 16.0%, <교육비> 및 <기타 생활비> 4.8%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40~49세 이하> 계층이 부채가 있다 응답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59세 이하> 50.9%, <30~39세 이하> 50.0%의 순서로 나타남
- <부채가 있다> 응답 비율은 남성이 37.3%로 여성 13.1%비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의 사유로는 남성은 <사업, 영농자금> 70.6%로 가장 높았는데 비해 <교육비>로 응답 비율은 3.7%로 가장 낮았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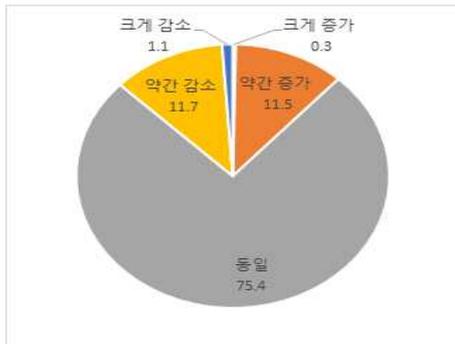
구분	부채 여부		부채의 주된 이유					
	있다	주택 임차구입	교육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	사업, 영농 자금	기타
2018	29.6	16.0	4.8	1.1	4.8	4.3	67.9	1.1
남	37.3	15.6	5.0		3.8	3.8	70.6	1.3
여	13.1	18.5	3.7	7.4	11.1	7.4	51.9	-
29세 이하	-	-	-	-	-	-	-	-
30-39세 이하	50.0	100.0	-	-	-	-	-	-
40-49세 이하	61.5	37.5	12.5		8.3	8.3	33.4	-
50-59세 이하	50.9	17.3	5.2	3.5	5.2	5.2	62.1	1.7
60세이상	18.0	5.0	3.0	-	4.0	3.0	83.9	1.0
초졸이하	14.9	16.3	2.0	-	4.1	-	75.5	2.0
중졸	25.4	3.2	3.2	-	-	3.2	90.4	-
고졸	43.3	13.2	7.4	1.5	5.9	1.5	69.2	1.5
대졸 이상	49.0	30.8	5.1	2.5	7.7	15.4	38.5	-

4. 가계 소득과 부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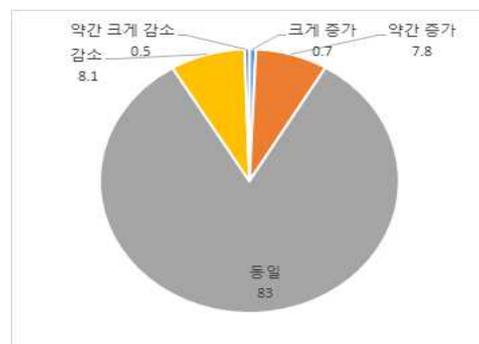
가계소득과 부채에 대해서는 1년 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4%와 83.0%로 가장 높음

- 가계소득에 대해서는 1년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약간 감소> 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1.7%, <약간 증가>는 11.5%의 순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보면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았음
- 부채의 변화에 대해서는 1년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크게 감소>로 응답한 비율이 0.5%로 가장 낮았음
 - 학력별 <동일> 비율은 초졸이하 90.8%, 중졸 87.6%, 고졸 78.7%, 대졸 이상 65.5%의 순서로 나타남

소득의 변화



부채의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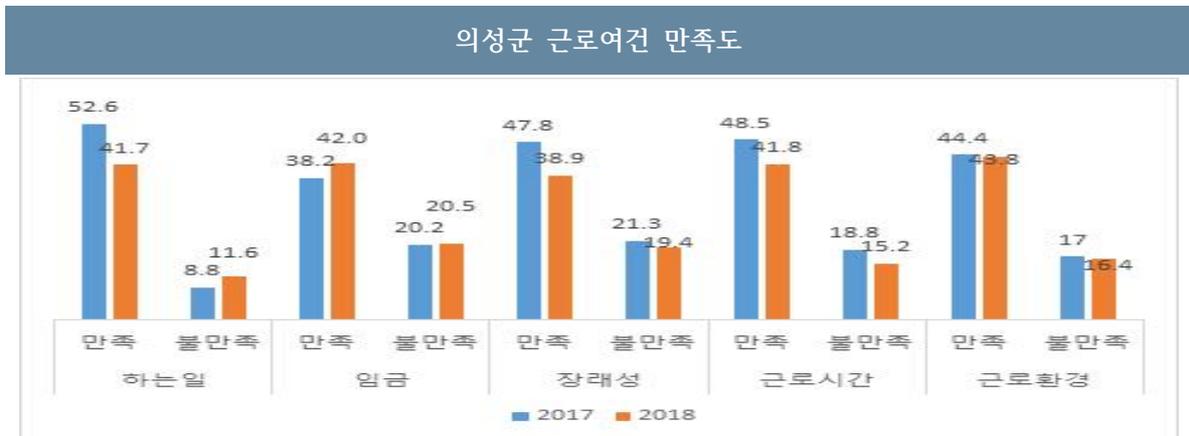
구분	소득의 변화					부채의 변화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동일	약간 감소	크게 감소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동일	약간 감소	크게 감소
2018	0.3	11.5	75.4	11.7	1.1	0.7	7.8	83.0	8.1	0.5
남	-	13.8	72.1	12.7	1.5	0.6	9.2	79.23	10.2	0.7
여	0.8	7.1	82.1	9.6	0.4	0.7	4.7	91.1	3.5	-
29세 이하	-	24.8	75.2	-	-	-	-	100.0	-	-
30-39세 이하	-	33.3	66.7	-	-	-	16.7	58.3	25.0	-
40-49세 이하	-	12.8	76.9	10.3	-	-	2.6	74.3	20.5	2.6
50-59세 이하	-	19.3	68.4	10.5	1.8	0.9	14.9	72.8	10.5	0.9
60세이상	0.4	9.3	76.9	12.3	1.1	0.7	5.4	88.9	4.7	0.2
초졸이하	0.3	7.2	83.5	8.7	0.3	-	6.0	90.8	3.2	-
중졸	-	9.5	72.2	15.9	2.4	0.7	4.0	87.6	6.9	0.7
고졸	0.6	18.8	63.6	15.2	1.8	0.9	10.2	78.7	8.8	1.5
대졸 이상	-	18.1	69.9	10.8	1.2	1.9	12.0	65.5	20.6	-

IV 노동

1. 근로여건 만족도

취업자의 근로여건에 대해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비율이 43.8%로 가장 높고, 「장래성」에 대한 만족비율이 38.9%로 가장 낮음.

- 도내 근로시간 만족 비율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반면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의성군은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5%로 가장 낮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하는일 및 임금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래성에 대한 만족 비율은 38.9%로 전년 47.8% 대비 8.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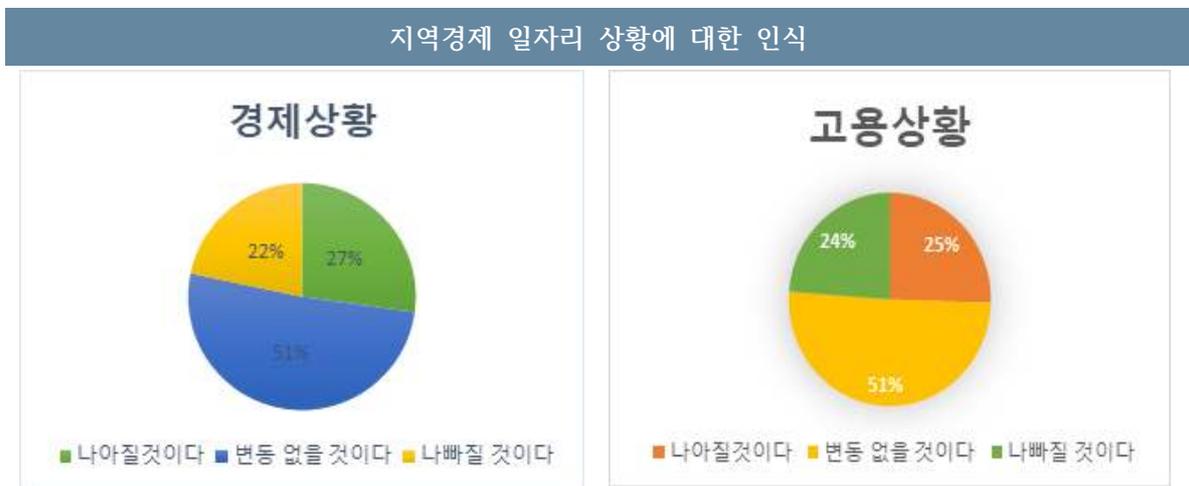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하는일		임금		장래성		근로시간		근로환경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경북	2017	42.2	13.0	29.8	24.7	-	-	36.9	18.8	35.4	20.7
	2018	45.6	16.3	33.0	27.9	33.0	28.0	38.5	21.9	37.2	23.5
	(증감)	+3.4	+3.3	+3.2	+3.2	-	-	+1.6	+3.1	+1.8	+2.8
의성군	2017	52.6	8.8	38.2	20.2	47.8	21.3	48.5	18.8	44.4	17.0
	2018	41.7	11.6	42.0	20.5	38.9	19.4	41.8	15.2	43.8	16.4
	(증감)	-10.9	2.8	3.8	0.3	-8.9	-1.9	-6.7	-3.6	-0.6	-0.6
	초졸이하	7.3	33.5	13.6	51.1	2.4	44.7	7.3	35.9	11.2	36.0
	중졸	33.4	30.0	19.4	38.6	19.4	38.6	33.4	44.2	24.6	38.6
	고졸	44.5	11.8	40.3	20.9	37.0	27.0	33.4	17.9	41.9	18.6
대졸 이상	51.2	2.6	54.5	8.9	53.3	4.9	58.2	3.7	57.0	6.3	

2.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우선정책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응답한 비율은 27.2%인 반면 나빠질 것이다 응답 비율은 21.7% 대비 5.5% 높음

-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응답한 비율은 27.2%로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25.5%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음
 -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응답 비율은 25.5% 나빠질 것이다 23.8% 대비 근소한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응답 비율은 29세 이하 44.1% 30~39세 이하 36.6%, 40~49세 이하 30.4% 등의 순서로 나타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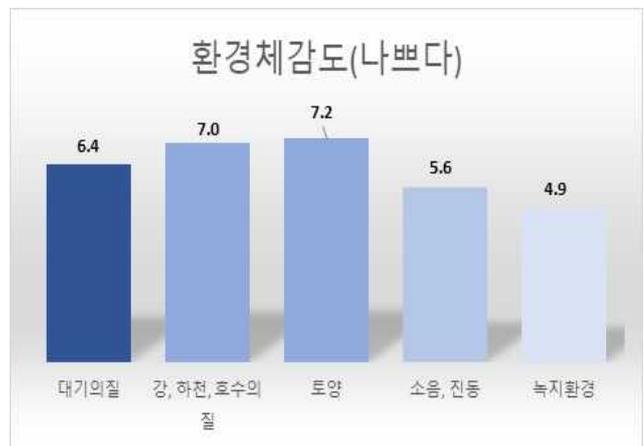
구분	경제상황			고용상황		
	나아질 것이다	변동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변동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2018	27.20	51.08	21.72	25.50	50.67	23.83
남	26.24	49.68	24.07	20.37	51.03	28.60
여	28.00	52.22	19.78	26.63	50.38	23.00
29세 이하	44.11	38.23	17.65	44.12	38.24	17.65
30-39세 이하	36.58	46.34	17.08	36.59	46.34	17.07
40-49세 이하	31.64	50.63	17.73	30.38	49.37	20.25
50-59세 이하	29.52	46.19	24.28	28.57	44.29	27.14
60세 이상	21.40	55.89	22.72	20.55	53.13	26.32
초졸이하	22.80	54.01	23.20	20.86	52.88	26.26
중졸	18.83	56.05	25.13	19.21	52.22	28.57
고졸	26.00	53.85	20.15	23.49	53.38	23.13
대졸 이상	43.62	38.05	18.33	41.03	35.90	23.08

V 환경

1. 환경체감도

환경체감도는 전체 항목에서 <좋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대기의질>이 좋다는 비율이 77.9%임

- 환경체감도에 대해 <대기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77.9%로 전년도 대비 만족도 비율이 증가하였음. <소음 및 진동> 만족도 비율이 73.2%로 전년도 대비 28.8% 증가한 응답비율을 보였음



(단위 : %)

구분		대기의 질		강,하천,호수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좋다	나쁘다								
의성군	2017	59.1	9.9	50.2	12.1	48.5	11.8	44.4	13.2	54.2	10.3
	2018	77.9	6.4	73.2	7.0	67.0	7.2	73.2	5.6	68.6	4.9
	(증감)	+18.8	-3.5	+23.0	-5.1	+18.5	-4.6	+28.8	-7.6	+14.4	-5.4

VI 안전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만족도

국가안보 비율이 46.6%로 전년도 대비 36.6% 증가하였음

- 식량안보 안전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고, 범죄위험 53.2%, 화재 48.6%, 건축물시설물 47.3%, 국가안보 46.6% 등 순으로 높았음
- 전년도 대비 국가안보 비율이 가장 증가하였음



(단위 : %)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시설물		교통이용		화재		식량안보		정보보안		신종전염병		범죄위험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안전 하다	불안 하다
2017	10.0	68.9	25.0	45.6	24.1	27.7	26.1	29.0	27.8	33.3	42.1	26.0	22.6	44.3	22.0	51.0	31.4	35.4
2018	46.6	29.2	46.8	24.3	47.3	8.9	40.4	19.2	48.6	12.5	61.3	11.7	31.2	20.0	33.4	28.8	53.2	17.1
(증감)	+36.6	-39.7	+21.8	-24.3	+23.2	-18.8	+14.3	-9.8	+20.8	-20.8	+19.2	-14.3	+8.6	-24.3	+11.4	-22.2	+21.8	-18.3

2. 안전환경 : 동네주민에 대한 견해

안전환경 : 동네주민에 대한 견해에서는 <범죄발생 신고>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비율로 71.4%로 가장 높음

- '범지발생시 신고한다' 문항은 2017년 대비 4.1% 증가
- 동네사람들에 대해 평소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70.9%로 전년 64.4% 대비 6.5% 높음
 - 「그렇다」로 비율은 여자가 72.5% 남자보다 3.5% 높음
- 평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56.3% 「그렇지 않다」 19.6%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여자가 55.8%로 남자보다 1% 낮음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61.6% 「그렇지 않다」 16.5%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여자가 59.9%로 남자보다 3.8% 낮음

(단위 : %)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낸다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2017	64.4	24.9	10.7	46.3	31.9	21.8	49.5	34.3	16.2
2018	70.9	20.5	8.6	56.3	24.1	19.6	61.6	21.9	16.5
남	69.0	21.3	9.7	56.8	23.3	19.9	63.7	20.5	15.8
여	72.5	19.9	7.7	55.8	24.8	19.4	59.9	23.0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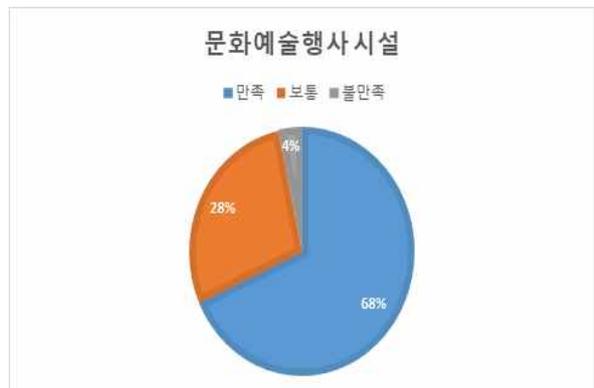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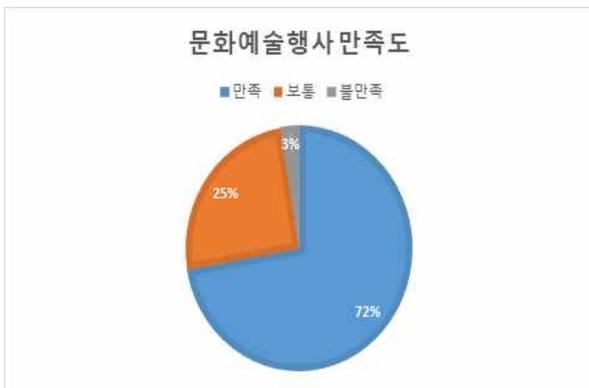
구분	동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			범죄발생시 신고한다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2017	47.3	30.2	22.5	60.7	30.6	8.8	67.3	24.6	8.2	41.5	31.3	27.2
2018	52.4	25.8	21.8	68.0	24.4	7.6	71.4	21.4	7.2	43.8	28.0	28.3
남	53.2	26.0	20.8	69.0	24.1	6.9	72.4	21.4	6.3	48.8	28.5	22.8
여	51.7	25.7	22.6	67.1	24.7	8.2	70.7	21.4	9.0	39.7	27.5	32.8

VII 문화와 여가

1. 공연 및 스포츠 관람경험 및 만족도

□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비율은 30.8%로 도내 평균 48.3%에 비해 -17.5% 낮음

- 관람 비율은 29세 이하가 71.6%로 가장 높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람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59.5%, '불만족'이 3.9%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문화예술행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 58.3% '불만족' 4.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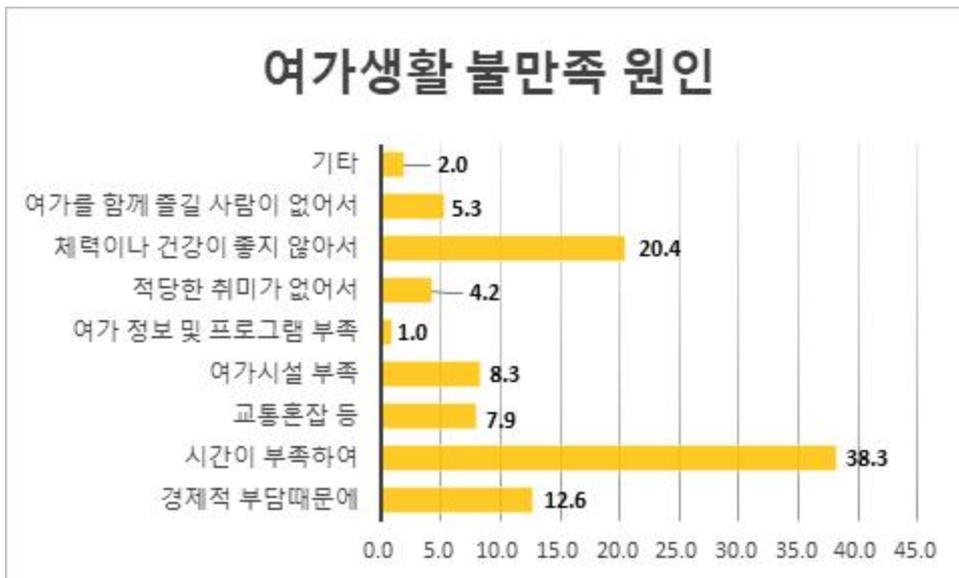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행사 시설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8	72.3	25.2	2.6	68.3	28.4	3.4
남	70.8	24.6	4.6	67.7	26.4	5.9
여	73.5	25.7	0.8	68.9	30.0	1.1
29세이하	57.7	42.3	-	50.0	50.0	6.8
30-39세	74.2	16.1	9.7	71.0	19.4	9.7
40-49세	67.4	28.3	4.4	67.4	28.3	4.4
50-59세	75.8	24.2	-	71.4	27.5	1.1
60-69세	78.4	21.0	0.6	74.7	22.8	2.5

2.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시 그 이유

여가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여 %로 나타냄

-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로 전년 19.4% 대비 11%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는 20대가 만족 41.2%, 불만족 14.7%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인데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7.0%로 만족한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하여」 38.3%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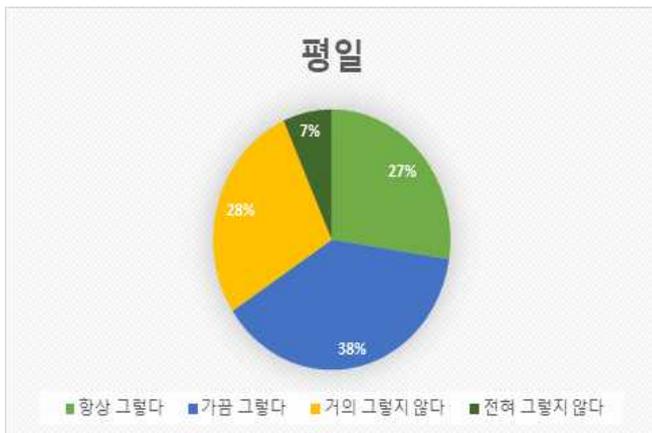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여가 시설 부족	정보 부족	취미 없음	건강 문제	즐길 사람 없음
2017	19.4	27.0	27.4	14.7	4.5	8.7	1.4	7.4	30.6	5.4
2018	30.4	17.0	12.6	38.3	7.9	8.3	1.0	4.2	20.4	5.3

3. 평소 생활속 시간압박의 체감

평소 생활속 시간압박은 여자보다 남자가 대체로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끼는 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일 65.8%, 주말 63.0%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평일 70.0%, 주말 63.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평일 62.4%, 주말 57.3%라고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속 시간압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평일에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다'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주말에는 400만원대 소득층이 78.9%로 시간압박을 가장 많이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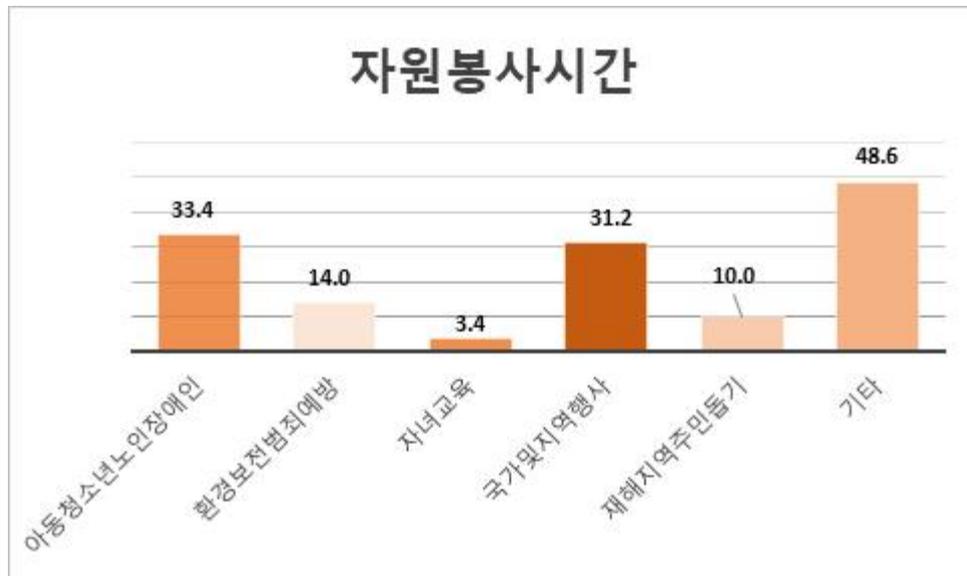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평일		주말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의	2017	59.6	40.4	51.8	48.2
	2018	65.8	34.2	63.0	39.9
성	남	70.0	30.1	63.5	36.5
	여	62.4	37.6	57.3	42.7

1.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시간

□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3%

- 봉사활동 참여율은 50-59세 계층이 2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49세 22.8% 순으로 나타남
- 봉사활동이 참여시간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33.4시간, 국가 및 지역행사 31.2시간, 환경보전 범죄예방 14시간 순으로 나타남
-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20세 이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시간)

구분	참여율	참여시간					
		아동, 청소년 노인재소자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국가, 지역행 사 관련	재해지역 돕기	기타
2018	13.0	33.4	14.0	3.4	31.2	10.0	48.6
남	14.3	25.7	17.5	5.2	35.1	15.5	52
여	11.9	41.0	10.4	1.6	27.4	4.5	45.3
29세이하	11.8	50	-	-	25	-	75
30-39세	7.3	33.3	33.3	33.3	33.3	-	100
40-49세	22.8	38.9	11.1	-	27.8	5.6	38.9
50-59세	23.3	32.7	18.4	4.1	30.6	12.2	42.9
60-69세	8.4	28.6	10	-	34.3	12.9	45.7

2. 유형별 후원(기부) 참여율 및 횟수

□ 후원(기부) 참여율은 20.1%로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이 10.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후원(기부) 참여율은 남자가 18.3%로 여자 9.3% 대비 9.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후원(기부) 참여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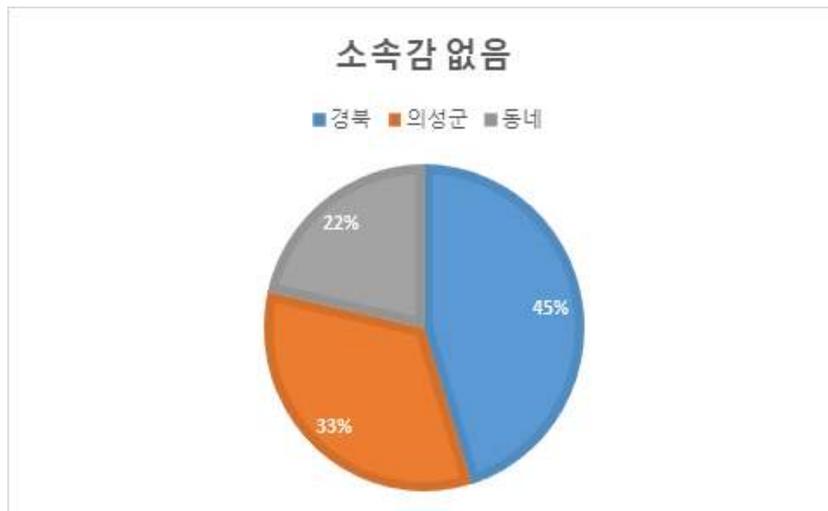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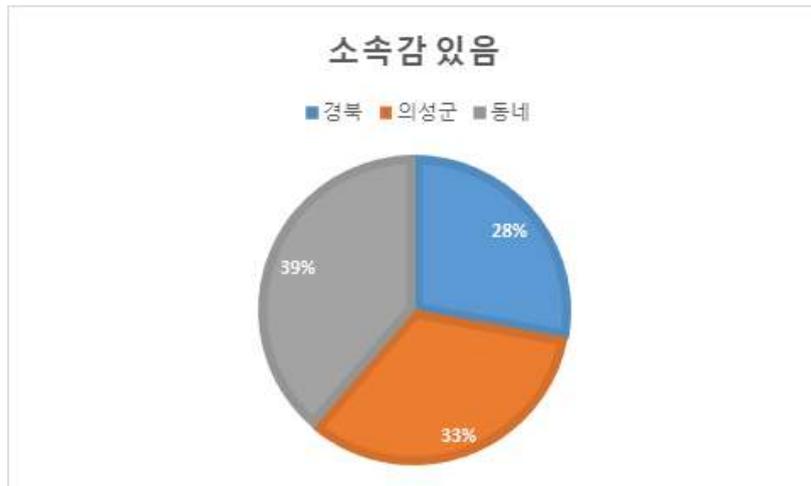


(단위 : %, 시간)

구분	참여율	연간 후원 횟수				
		대상자에 직접후원	언론기관 통한후원	모금단체 통한후원	종교단체 통한후원	직장 통한후원
2017	20.1	4.2	2.6	3.0	10.2	2.1
남	26.4	4.3	1.3	2.1	7.8	2.3
여	15.0	4.0	3.8	4.5	11.9	1.7
100만미만	7.9	1.5	1.0	1.6	7.2	2.0
100-200만	19.7	4.3	1.0	1.6	7.2	2.0
200-300만	27.2	1.0	1.0	3.3	11.7	2.0
300-400만	27.6	3.0	1.0	2.31	3.3	1.0
400-500만	33.0	3.0	1.0	2.3	3.3	1.0

3. 지역민으로서 소속감

- 의성군에 대한 소속감은 경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소속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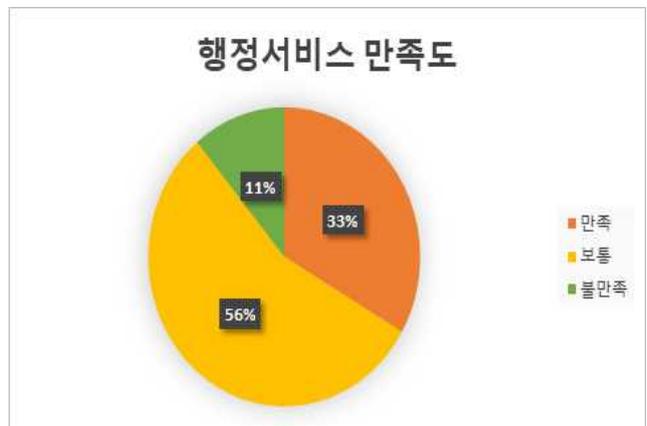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소속감	
	있다	없다
경북	57.4	42.6
의성군	68.5	31.5
동네	79.8	20.2

4. 도정/행정서비스 만족도

- 도정정책 만족도는 만족 37.7%로 불만족 10.4%대비 27.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정정책 만족도는 만족 남자가 39.0%로 여자 36.6%에 비해 2.4% 높고, 불만족은 여자 8.0%로 남자 13.2 대비 5.2%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만족 33.4%로 불만족 11.1% 대비 22.3%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도정정책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8	37.7	52.0	10.4	33.4	55.6	11.1
남	39.0	47.8	13.2	34.1	53.2	12.7
여	36.6	55.4	8.0	32.8	57.6	9.7
29세이하	23.5	55.9	20.6	17.7	61.8	20.6
30~39세	22.0	73.2	4.9	22.0	73.2	4.9
40~49세	36.7	50.6	12.7	24.1	60.8	15.2
50~59세	37.1	49.5	13.3	34.3	50.0	15.7
60~69세	43.0	48.8	8.2	38.3	53.0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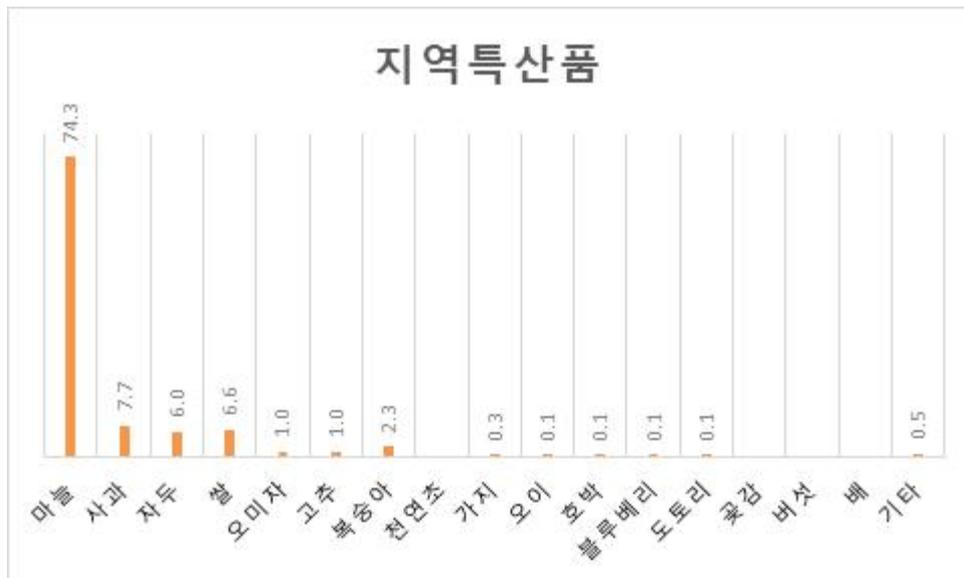
IX 의성군 특성항목

1. 의성군 지역특산품

지역특산품은 <마늘>이 74.3%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박>, <블루베리>가 0.1%로 가장 낮았음

- ▣ 지역특산품은 <마늘> 74.3%, <사과> 7.7%, <쌀> 6.6%, 자두 6.0% 순으로 높았으며 <호박>, <블루베리> 0.06%, <오이>, <도토리> 0.1%, <가지> 0.3% 순으로 낮았다.

<지역특산품>



(단위 : %)

구분	마늘	사과	자두	쌀	오미자	고추	복숭아	가지	오이	블루베리	도토리	호박	기타
전체	74.3	7.7	6.0	6.6	1.0	1.0	2.3	0.3	0.1	0.1	0.1	0.1	0.5
남	73.9	8.4	5.0	7.5	0.6	1.1	2.2	0.4	-	0.1	-	-	0.9
여	74.7	7.2	6.8	5.9	1.3	1.0	2.3	0.3	0.2	-	0.1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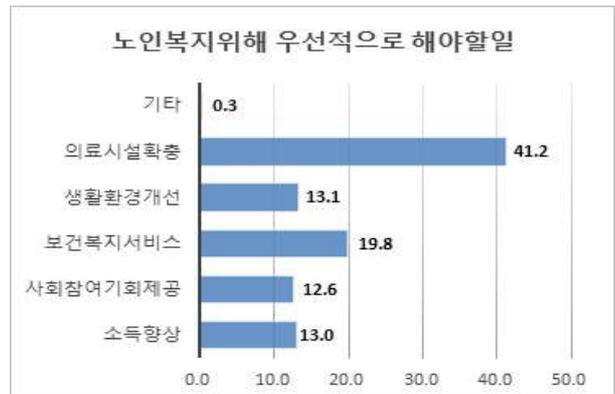
2.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65세 이상)

의성군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율이 높음

- 의성군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 65.9%, <경제어려움> 16.7%, <직업고용불안정> 4.7%, <외로움> 4.1% 순으로 높았음

<노인의 어려움>

구분	경제어려움	직업고용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푸대접	경로의식약화	도우미서비스부족	복지시설부족	기타
2018	16.7	4.7	3.7	62.9	4.1	0.3	0.9	0.4	4.0	2.2
남	15.7	1.2	3.9	60.8	4.5	0.4	1.4	0.7	4.2	4.2
여	17.4	2.1	3.6	64.5	3.0	0.3	0.5	0.3	3.8	0.8



- 원하는 복지저책에 대해 <의료시설 확충> 41.2%, <보건복지서비스> 19.8%, <생활환경개선> 13.1% 순으로 높았음

(단위 : %)

구분	소득향상	사회참여 기회제공	보건복지 서비스	생활환경개선	의료시설확충	기타
2018	13.0	12.6	19.8	13.1	41.2	0.3
남	12.9	14.0	20.3	12.6	39.9	0.4
여	13.0	11.5	19.4	13.6	42.2	0.3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인구늘리기>가 34.2%로 가장 높았음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구늘리기>가 34.2%로 가장 높고 <농업경제 살리기> 28.2%, <일자리 창출> 19.6%, <산업단지 조성> 8.0%,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3.9% 순으로 나타남
- 2017년도는 '농업경제 살리기',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각종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순서임
- 학력이 높을수록 '농업경제 살리기'라 응답한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지역경제활성화>

(단위 : %)

구분	인구늘리기	산업단지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농업경제	문화관광	각종규제 완화	기타
2017	31.7	12.2	7.1	12.0	32.1	8.1	-	1.4
2018	36.2	8.0	3.9	19.6	28.2	2.7	0.7	0.7
남	35.2	8.9	4.3	18.6	28.5	2.3	1.2	1.0
여	37.0	7.3	3.5	20.5	28.0	3.0	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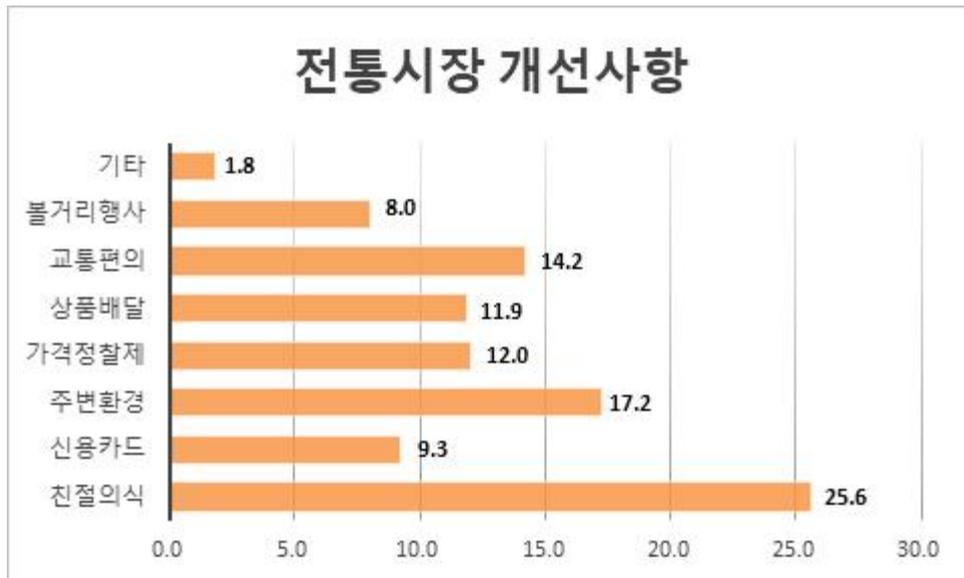
4. 전통시장 개선사항

전통시장 개선사항으로는 <상인의 친절의식>이 25.6%로 가장 높음

▣ 전통시장 개선사항에 대해 <상인의 친절의식> 25.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불거리 행사>는 8.0%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음

- 취업자의 경우는 <상인의 친절의식> 26.6%, <주변환경 개선> 16.1%, <교통 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14.7%의 순으로 응답함
- 미취업자의 경우는 <상인의 친절의식> 23.5%, <주변환경 개선> 19.6%, <상품배달> 15.1%의 순으로 응답

<전통시장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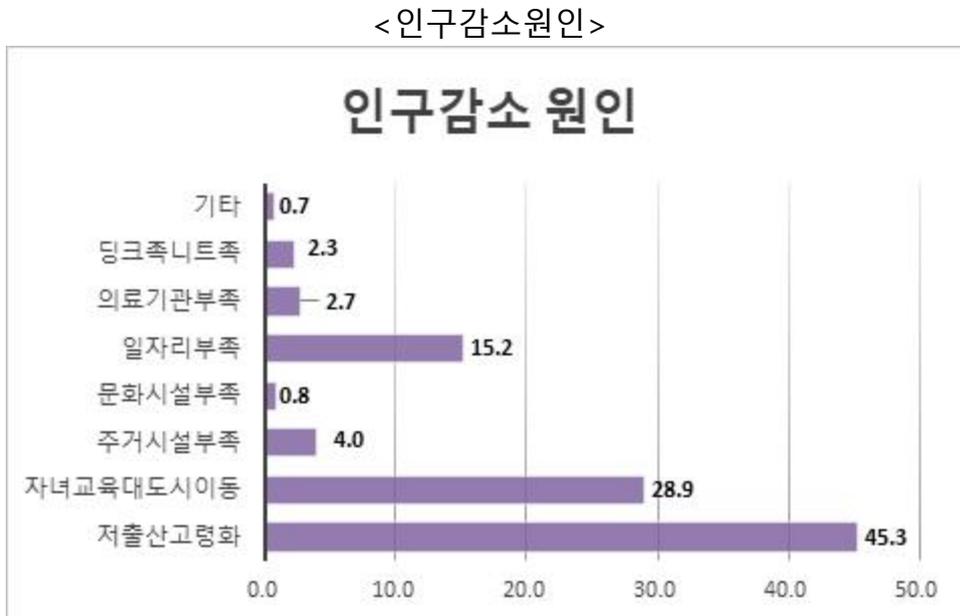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친절의식	신용카드	주변환경	가격정찰제	상품배달	교통편의	불거리행사	기타
2017	37.9	6.5	21.5	6.0	7.9	9.5	8.5	2.2
2018	25.6	9.3	17.2	12.0	11.9	14.2	8.0	1.8
취업자	26.6	10.2	16.1	11.6	10.3	14.7	8.2	2.2
미취업	23.5	7.3	19.6	12.9	15.1	13.1	7.6	0.9

5. 인구 감소 원인

의성군의 인구 감소 원인중 <저출산 고령화>가 45.3%로 가장 높음

- ▣ 의성군의 인구 감소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45.3%, <자녀교육대도시이주> 28.9%, <일자리 부족> 15.2%, <주거시설부족> 4.0%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저출산 고령화>, <자녀교육대도시이주>, <일자리부족>, <주거시설 부족>, <의료기관 부족>, <문화시설 부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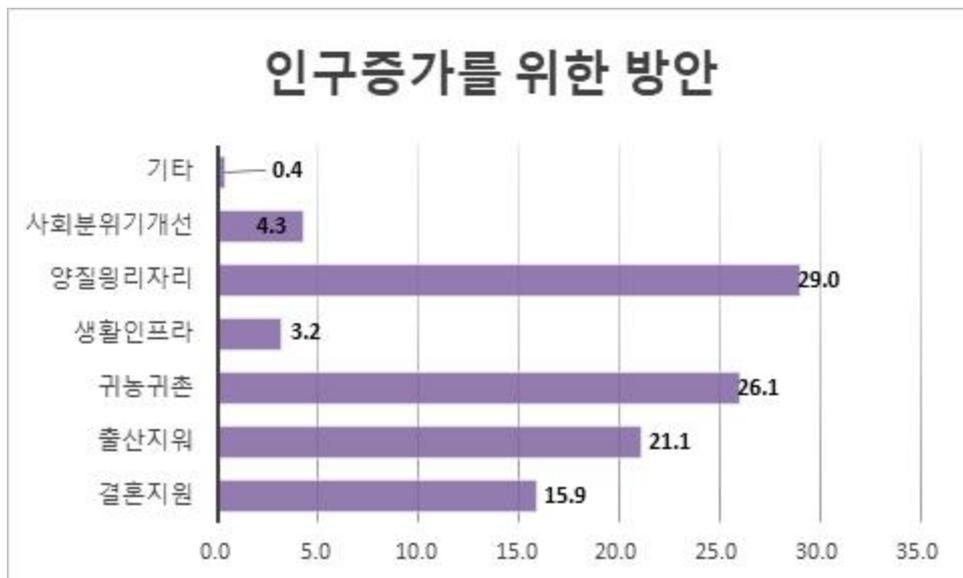
구분	저출산 고령화	자녀교육대도시 이주	주거시설 부족	문화시설 부족	일자리부족	의료기관 부족	딩크족 니트족	기타
2018	45.3	28.9	4.0	0.8	15.2	2.7	2.3	0.7
취업	43.6	32.3	2.7	0.9	14.8	2.3	2.6	0.9
미취업	48.7	21.9	6.7	0.7	16.1	3.7	1.8	0.4

6.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29.0%로 가장 높음

- ▣ 의성군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29.0%, <귀농귀촌> 26.1%, <출산지원> 21.1%, <결혼지원> 15.9%, <사회분위기 개선> 4.3%, <생활인프라 구축> 3.2% 순으로 높음
 - 취업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귀농귀촌>, <출산지원>, <결혼지원>, <사회분위기 개선>, <생활 인프라 구축> 순으로 높음
 - 미취업자의 경우 <귀농귀촌>, <양질의 일자리>, <결혼지원>, <출산지원>, <사회분위기 개선>, <생활 인프라 구축> 순으로 높음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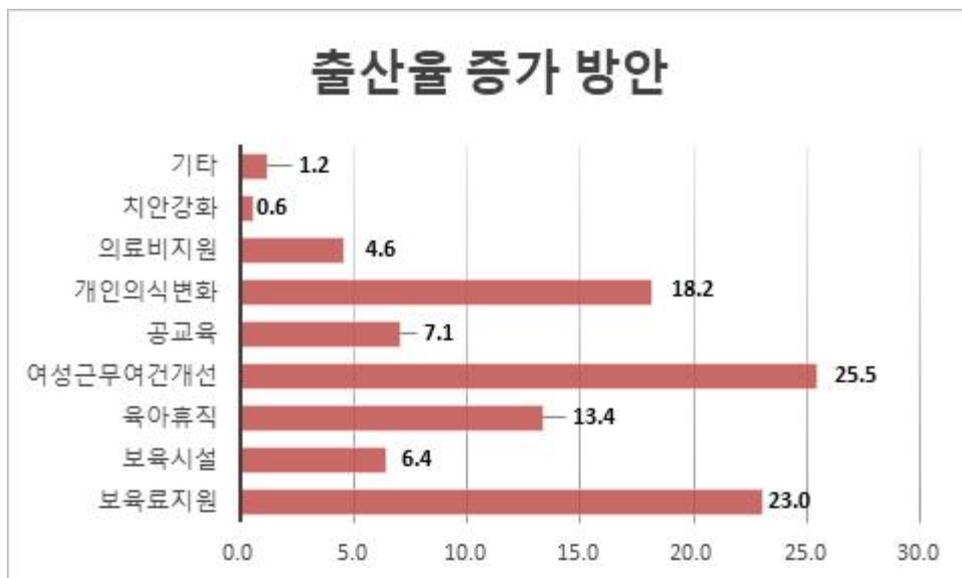
구분	결혼지원	출산지원	귀농귀촌	생활인프라 구축	양질의일자리	사회분위기 개선	기타
2018	15.9	21.1	26.1	3.2	29.0	4.3	0.4
취업	15.3	23.5	23.8	3.4	29.1	4.7	0.2
미취업	17.1	16.1	30.9	2.8	28.8	3.5	0.9

7. 출산율 증가 선행방안

출산율 증가 선행방안으로는 여성근무여건개선이 가장 높음

- ▣ 의성군에서 출산율 증가 선행방안으로 <여성근무여건개선> 25.5%로 가장 높았고, <보육료지원> 23.0%, <개인의식변화> 18.2%, <육아휴직> 13.4% 순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에 대한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23.4%, 여자 22.8%로 차이가 미미함
- 2018년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여성근무여건개선>으로 응답한 응답률은 25.5%로 2017년 15.6%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함

<출산율 증가 선행방안>



(단위 : %)

구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육아 휴직	여성근무 여건개선	공교육	개인의식 변화	의료비지원	치안강화	기타
2017	31.7	10.4	-	15.6	6.5	12.7	-	-	23.1
2018	23.0	6.4	13.4	25.5	7.1	18.2	4.6	0.6	1.2
29세이하	17.7	2.9	17.7	32.3	8.8	20.6	-	-	-
30-39세이하	19.5	9.8	14.6	39.0	2.4	12.2	2.4	-	-
40-49세이하	19.0	3.8	12.7	26.6	12.7	13.9	6.3	-	5.1
50-59세 이하	20.0	6.2	12.9	22.4	7.6	17.7	4.9	0.7	0.7
60-69세 이하	26.3	6.9	12.9	22.4	7.6	17.7	4.9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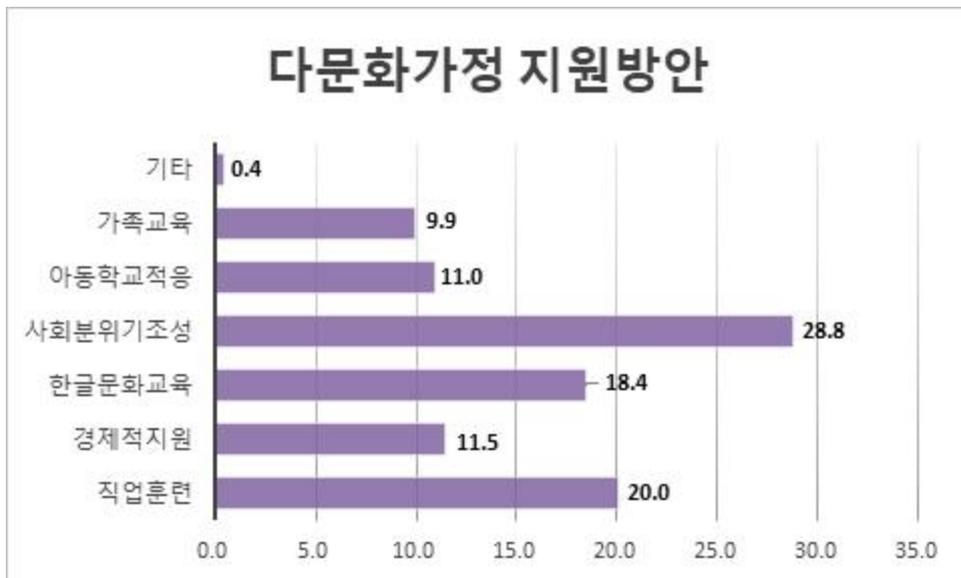
8.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다문화(외국, 혼혈) 가정에 대해 사회분위기 조성이 20.8%로 가장 높음

▣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에 대해 <사회분위기 조성> 28.8%, <직업훈련> 20.0%, <한글문화교육> 18.4%, <경제적지원> 11.5% 순으로 나타남

- <사회분위기조성>은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은 차이가 미미
- <직업훈련>은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단위 : %)

구분	직업훈련	경제적지원	한글문화교육	사회분위기 조성	아동학교 적응	가족교육	기타
2017	24.8	14.4	19.6	21.5	7.0	11.9	1.4
2018	20.0	11.5	18.4	28.8	11.0	9.9	0.4
남	20.3	12.2	19.5	27.7	11.8	7.9	0.6
여	19.7	10.9	17.5	29.7	10.3	11.6	0.3

2018년 기준 사회조사 조사표(가구주)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경상북도 · 의성군 사회조사표 가구주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생활상태와 의식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수립, 도정평가, 지역발전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살기 좋은 경북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경상북도 및 의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054-880-2142), 의성군 총무과(☎054-830-607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기입란

시·군	읍·면·동	행정구역 코드 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일련 번호	가구원 번호	표본가구번호
		3 7 3 2 0				0 1	

가구주 성명	주소
--------	----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9, 3기준)	혼인 상태	교육정도		조사 여부	불응/불능/분거사유
			남	여			교육과정	수학정도		
1		1	①	②	만 세					
2			①	②	만 세					
3			①	②	만 세					
4			①	②	만 세					
5			①	②	만 세					
6			①	②	만 세					
7			①	②	만 세					
8			①	②	만 세					

가족외 관계	가족외 관계		혼인 상태	교육 정도	교육과정		수학정도		조사 여부
	1. 가구주	6. 부모(배우자 쪽 포함)			① 학교에 다니지 않음	⑤ 대학교	① 졸업	1. 조사	
2. 가구주의 배우자	7.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2. 미혼	② 초등학교	⑥ 대학원(석사)	② 재학 (휴학포함)	2. 대상외 (15세미만)			
3. 미혼자녀	8. 미혼 형제·자매	3. 배우자 있음	③ 중학교		⑦ 대학원(박사)	③ 중퇴	3. 불응		
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9. 기타 친·인척	4. 이혼	④ 고등학교			④ 수료	4. 불능		
5. 손자녀 및 그 배우자	10. 기타 동거인					5. 비상주 가구원 (분거가족)			

불응/불능/분거사유		
3. 불응	4. 불능	5. 비상주 가구원(분거가족)
1. 비빠서 2. 사생활 노출 기피 3. 가정사정(실업, 이혼 등) 4. 정부불신	1. 늦은 귀가/단기 부재 2. 고령, 장애, 질병 3. 장기 출타(입원, 여행, 출장 등) 4. 직업상 부재(항공기탑승 등) 5. 기타	1. 직장(직업) 2.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3. 군대 4. 기타

- ◆ 조사 대상 :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 [실제 나이][양력 2003. 9. 2, 음력 2003. 8. 6일 이전 출생자]
- ◆ 비상주가구원(분거가족) : 가족 중 타거처/타지역(해외포함)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11-1. 귀 댁에서는 대학교 등록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셨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각각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현재 휴학중이라면 최근 재학했던 학기를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현재 대학생 자녀(본인 및 배우자 포함)가 있는 경우 (2018년 1학기 등록금 기준)
1) 부모(가족)의 도움	() %
2) 대출(학자금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 %
3) 학생 스스로 벌어서	() %
4) 장학금	() %
5) 기타()	() %
합 계	100%

■ 평생교육 참여 및 미참여 이유

■ 평생교육 만족도

※ 평생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아에 서부터 생을 마감할때까지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의미(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 교육기회 형평성

소득과 소비

■ 소득만족도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됨.

※ 만 19세 이상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 소비생활 만족도

※ 만 19세 이상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12. 귀하께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2-1번으로) ② 없다(☞ 12-2번으로)

12-1. 귀하께서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2. 귀하께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부족 ④ 경제력 부족
 ② 건강상 이유 ⑤ 기타()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13. 귀하께서는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4번으로) ② 그렇지 않다(☞ 13-1번으로)

13-1. 귀하께서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교육비 부담)
 ②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③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부진으로
 ④ 부모 및 가족의 전근대적 교육관, 사고방식 때문에(성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등)
 ⑤ 집안을 직접 돌보아야 할 형편이어서
 ⑥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⑦ 기타()

14.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 ① 예(☞ 14-1번으로) ② 아니오(☞ 15번으로)

14-1.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③ 보통 ⑤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만족 ④ 약간 불만족

15. 귀하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 가구전체의 소비지출비용이며, 현금 지출 외에 현물지출도 포함하고, 저축, 부동산 투자 및 대출이자 상환 등 자산 증가 및 감소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합니다.

※ 부채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도, 주된 이유 한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

■ 소득과 부채의 변화

■ 지역경제 및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노동

지역산업

16. (가구주만 응답) 귀댁의 지난 1년간 (2017. 9. 3. ~ 2018. 9. 2.) 월평균 총 소비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총소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17.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만 응답) 귀댁에는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17-1번으로)
- ② 없다(☞ 18번으로)

17-1.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택 임차 및 구입
- ⑤ 채테크 투자(주식, 부동산 등)
- ② 교육비
- ⑥ 사업, 영농자금(농기계구입, 시설투자 등)
- ③ 의료비
- ⑦ 기타()
- ④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18. (가구주만 응답) 귀 댁에서 지출하는 항목중 가장 부담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식비(식료품비)
- ⑦ 경조사비
- ② 의료비
- ⑧ 교통·통신비
- ③ 교육비
- ⑨ 보험료
- ④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 ⑩ 없음
- ⑤ 각종 빚(채무) 원리금 상환
- ⑪ 기타()
- ⑥ 주택마련자금을 위한 저축

19.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 가구의 소득과 부채의 변화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동일	약간 감소	크게 감소
1)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부채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시군의 경제상황이 향후 5년내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아질 것이다
- ② 변동 없을 것이다
- ③ 나빠질 것이다

2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시군의 고용상황이 향후 5년내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아질 것이다
- ② 변동 없을 것이다
- ③ 나빠질 것이다

2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 정부기관, 외자유치
- ⑤ 규제완화
- ② 산업단지 조성
- ⑥ 지역기업 기금지원
- ③ 지역연구 특화산업 육성
- ⑦ 기업 기술개발 지원
- ④ 각종 일자리 창출
- ⑧ 기타()

환경

■ 환경체감도

23.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 좋다	②약간 좋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1) 대기의 질 -----	<input type="radio"/>				
2) 강, 하천, 호수의 질 -----	<input type="radio"/>				
3)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	<input type="radio"/>				
4) 소음, 진동 -----	<input type="radio"/>				
5)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 -----	<input type="radio"/>				

안전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4.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 안전	②비교적 안전	③보통	④비교적 불안	⑤매우 불안
1) 국가안보(전쟁 가능성, 북핵문제 등) -----	<input type="radio"/>				
2)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	<input type="radio"/>				
3)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	<input type="radio"/>				
4) 교통이용 -----	<input type="radio"/>				
5) 화재(산불 포함) -----	<input type="radio"/>				
6) 식량안보(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	<input type="radio"/>				
7)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	<input type="radio"/>				
8)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SARS) -----	<input type="radio"/>				
9) 범죄 위험 -----	<input type="radio"/>				
10) 전반적인 사회 안전 -----	<input type="radio"/>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25.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에 ✓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	<input type="radio"/>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input type="radio"/>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	<input type="radio"/>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input type="radio"/>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	<input type="radio"/>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	<input type="radio"/>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	<input type="radio"/>				

26. 우리 동네 주위환경에 대해 평소 느낀 점에 ✓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	<input type="radio"/>				
2)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	<input type="radio"/>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	<input type="radio"/>				
4)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 -----	<input type="radio"/>				
5)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	<input type="radio"/>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input type="radio"/>				

의성군 특성항목

■ 지역특산물 개발방안

44. 귀하는 향후 육성해야 할 의성군의 대표 지역특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① 마늘 | ⑤ 오미자 | ⑨ 가지 | ⑬ 도토리 | ⑰ 기타() |
| ② 사과 | ⑥ 고추 | ⑩ 오이 | ⑭ 꽃감 | |
| ③ 자두 | ⑦ 복숭아 | ⑪ 호박 | ⑮ 버섯 | |
| ④ 쌀 | ⑧ 천연초 | ⑫ 블루베리 | ⑯ 배 | |

■ 노인의 어려움

■ 45~45-1번은 만 65세 이상
(양력 1953. 9. 2.이전 출생자)
만 응답

45. (만 65세 이상자만 응답)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적인 어려움 | ⑥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 |
| ②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 ⑦ 사회에서의 경로익식 약화 |
| ③ 소일거리가 없음 | ⑧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밥해주기, 청소하기 등) 부족 |
| ④ 건강문제 | ⑨ 노인복지시설 부족 |
| ⑤ 외로움, 소외감 | ⑩ 기타() |

45-1.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노인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노인 일자리 등 소득향상 | ⑤ 노인의료시설 확충 |
| ② 노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방문서비스 포함) |
| ③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개선 | ⑥ 기타() |
| ④ 노인 생활환경 개선 | |

■ 지역경제 활성화

46. 귀하는 의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인구 늘리기 | ⑤ 농업경제 살리기 |
| ②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⑥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 ③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 ⑦ 각종 규제 완화 |
| ④ 각종 일자리 창출 | ⑧ 기타() |

■ 전통시장 개선사항

47. 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상인의 친절의식 및 경영마인드 제고 | ⑤ 상품배달 등 서비스 개선 |
| ② 신용카드 사용 등 거래형태 개선 | ⑥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
| ③ 주변환경 개선 | ⑦ 볼거리 행사 및 쉼터 확충 |
| ④ 가격정찰제 실시 및 원산지 표시 | ⑧ 기타() |

■ 인구증가정책 개선방안

48. 귀하는 의성군 인구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저출산 및 고령화(자연감소) | ⑤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만혼현상 |
| ②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로 이동 | ⑥ 의료기관 부족 |
| ③ 주거시설 부족 | ⑦ 덩크족, 니트족 등 사회분위기 |
| ④ 문화·체육 시설 부족 | ⑧ 기타(자세하게:) |

※ 덩크족 :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

※ 니트족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49. 귀하는 의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힘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결혼 지원(각종 지원금, 만남기회 확대 등) | ④ 생활인프라 구축(아파트 건립 등) |
| ② 출산 지원(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출산육아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등) | ⑤ 양질의 일자리 제공 |
| ③ 귀농귀촌자 지원 확대 | ⑥ 사회분위기 개선 |
| | ⑦ 기타(자세하게:) |

■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49-1. 귀하께서는 의성군의 출산율 증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료 지원
- ② 보육시설 증대
- ③ 육아휴직 활성화
- ④ 여성근무여건 개선
- ⑤ 공교육 역할증대(사교육비 감소)
- ⑥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양육부담감 등)
- ⑦ 의료비 지원(출산관련 진료, 불임시술비 등)
- ⑧ 치안강화로 아동에 대한 범죄율 감소
- ⑨ 기타(자세하게:)

50. 귀하는 다문화(외국, 혼혈) 가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②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적 지원
- ③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문화교육 서비스
- ④ 다문화 가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 ⑤ 다문화가구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노력
- ⑥ 다문화가정 가족교육 실시(배우자, 시어머니 등)
- ⑦ 기타()

※ 조사표 작성 후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_____ 연락 전화번호 () -

조사원 성명	연락처	조사일시	2018년 월 일 시	분부터	분 동안
--------	-----	------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용어 설명

용어	설명	비고
교육내용(수준)	-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학교 주변 환경	- 주변 환경이 교육여건에 적당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부모님 생존여부	- 친부모만 대상으로 함(시부모님x)	
녹지환경	- 공원, 가로수 등 주변 녹지의 조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	
식량안보	-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농산물 수입의존, 유가폭등으로 인한 곡물가 폭등, 주요 곡창지대의 가뭄, 식량수급 불균형, 식량 자급률 부족 등을 의미한다.	
신종 전염병	- 신종 전염병의 예로는 신종플루 등 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광우병 AIDS 등	
모금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기아 대책기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현금 후원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의미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아들 또는 며느리	- 장남을 포함한 차남, 삼남 등 아들들이 공동으로, 또는 장남은 아니더라도 차남, 삼남 등 아들이나 며느리가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부모님 스스로 해결	- 자식의 도움 없이 부모 자신이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경우 - 자식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부모님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경우	
모든자녀	- 모든 자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 부모님 각분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다른 경우	
전공(예체능, 특성화고, 대학이상)	- 예체능고생, 특성화고생, 대학생, 대학원생만이 조사 대상임	
소질과 적성 개발	-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건축물 및 시설물 (주택, 교량 등)	- 건축물 붕괴사고, 대형폭발사고, 가스사고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를 의미	

표본설계 방식

□ 표본추출

2018년 경상북도 사회조사는 조사 자료로부터 경상북도 전체와 23개 시군별로 12개 영역에 걸친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이다.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사회조사에서 추정하는 관심모수는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경상북도 사회조사와 같은 가구 대상 조사는 최종 가중값을 산출하여 추정한다. 조사항목에 대해 경상북도 전체와 시군별 비율 또는 구성비에 대한 추정량과 분산 추정식, 상대표준오차 추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중값을 반영한 추정을 위해서는 복합표본조사자료를 분석하는 전문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SPSS의 복합표본(Complex Samples), SAS의 survey 프로시저(proc surveymeans 등), Stata, R의 survey 패키지 등의 사용을 권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전체, 시군별 및 특성별 평균(비율) 추정과 평균 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식, 상대표준오차 추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평균 추정식 및 표본오차와 관련된 모든 계산은 SAS에서 제공하는 PROC SURVEYMEANS 모듈을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추정식에서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기호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h = 1, 2, \dots, L$: h 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h 번째 층의 i 번째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j = 1, \dots, m_{hi}$: h 층 i 번째 조사구내 j 번째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
- $k = 1, \dots, K_{hij}$: h 층 i 조사구 j 번째 가구의 k 번째 가구원을 나타내는 첨자
- N_h : h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h 층의 표본 조사구 수
- M_{hi} : h 층 i 번째 조사구의 모집단 가구 수
- m_{hi} : h 층 i 번째 조사구의 표본 가구 수 ($m_{hi} = m = 20$)
- K_{hij} : h 층 i 조사구 j 번째 표본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 수
- w_{hij} : h 층 i 조사구 j 번째 표본 가구(가구원)에 대한 가중값
- y_{hij} : h 층 i 조사구 j 번째 표본 가구에 대한 관측값
- y_{hijk} : h 층 i 조사구 j 번째 표본 가구의 k 번째 가구 구성원에 대한 관측값

각 관측값에 대한 가중값 w_{hij} 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시군별 평균 추정값을 산출한다.

$$\bar{y}_h = \frac{\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i=1}^{n_h} \sum_{j=1}^{m_{hi}} w_{hij}}$$

여기서 만약 h 층의 i 번째 표본조사구의 j 번째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y_{hij} = 1$, 그 외에는 0이라 두면, 모비율의 추정값로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이 범주형으로 주어진 경우 각 범주별 구성비율의 추정이 관심사이다. 만약 범주형 변수 C 의 범주가 q 개 있으면 이를 c_1, c_2, \dots, c_q 로 표시하자. 이 경우 h 층 i 조사구 j 번째 표본 가구에 대한 관측값 y_{hij} 를 k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_{hij}^{(k)} = I_{C=c_k}(h, i, j) = \begin{cases} 1 & \text{if } C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구성비의 추정값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y_{hij} 대신 $y_{hij}^{(k)}$ 를 사용하면 된다.

시군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hat{V}(\bar{y}_h) = \frac{\frac{n_h}{n_h - 1} (1 - f_h) \sum_{i=1}^{n_h} \left[W_{hi} (\bar{y}_{hi} - \bar{y}) - \frac{1}{n_h} \sum_{s=1}^{n_h} W_{hs} (\bar{y}_{hs} - \bar{y}) \right]^2}{\left(\sum_{i=1}^{n_h} W_{hi} \right)^2}$$

여기서 $W_{hi} = \sum_{j=1}^{m_{hi}} w_{hij}$ 는 h 층 i 번째 조사구내의 가구들의 가중값의 합을 나타내며,

$\bar{y}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left(\sum_{j=1}^{m_{hi}} w_{hij} \right)$ 는 h 층 i 번째 조사구내의 가구들의 관심변수들의 평균이다.

평균 추정량에 대한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CV)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at{SE}(\bar{y}_h) = \sqrt{\hat{V}(\bar{y}_h)}$$

$$\hat{CV}(\bar{y}_h) = \frac{\sqrt{\hat{V}(\bar{y}_h)}}{\bar{y}} \times 100(\%)$$

모집단 평균(경북도 전체)에 대한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경북도 전체평균 \bar{y} 에 대한 표본분산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hat{V}(\bar{y}) = \frac{\sum_{h=1}^L \frac{n_h}{n_h-1} (1-f_h) \sum_{i=1}^{n_h} \left[W_{hi} (\bar{y}_{hi} - \bar{y}) - \frac{1}{n_h} \sum_{s=1}^{n_h} W_{hs} (\bar{y}_{hs} - \bar{y}) \right]^2}{\left(\sum_{h=1}^L \sum_{i=1}^{n_h} W_{hi} \right)^2}$$

특정 유형에 속한 비율을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식을 약간 변형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특성별(성별 혹은 연령별) 추정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bar{y}_G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 w_{hij} y_{hij} I[hij \in G]}{\sum_{h=1}^L \sum_{i=1}^{n_h} \sum_{j=1}^m w_{hij} I[hij \in G]}$$

여기서 G 는 남녀 혹은 연령별 구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I[hij \in G]$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의 j 번째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지시함수이다. 이 경우 분산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hat{V}(\bar{y}_G) = \frac{\sum_{h=1}^L \frac{n_h}{n_h-1} (1-f_h) \sum_{i=1}^{n_h} \left[W_{hiG} (\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 (\bar{y}_{hsG} - \bar{y}_G) \right]^2}{\left(\sum_{h=1}^L \sum_{i=1}^{n_h} W_{hiG} \right)^2}$$

여기서 가중값의 합은 $W_{hiG} = \sum_j^{m_{hi}} w_{hij} I[hij \in G]$ 이고, 유형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bar{y}_{hiG} = \frac{\sum_{j=1}^{m_{hi}} w_{hij} y_{hij} I[hij \in G]}{\sum_{j=1}^{m_{hi}} w_{hij} I[hij \in G]}$$

한편, 가구원대상 조사변수에 대한 추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 가구구성원에 대해 조사된 각종 변수에 대한 평균추정을 위한 가중값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먼저 결측값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은 다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가중치 y_{hijk} 는 가구 가중치 w_{hij} 와 같다. 이 경우 앞에서 주어진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ar{y}_h = \frac{\sum_{i=1}^{n_h} \sum_{j=1}^{m_{hi}} \sum_k^{K_{hij}} w_{hijk} y_{hijk}}{\sum_{i=1}^{n_h} \sum_{j=1}^{m_{hi}} \sum_k^{K_{hij}} w_{hijk}}$$

표본분산 공식은 앞에서 y_{hij} 대신 $y_{hij}^* = \sum_k^{K_{hij}} y_{hijk}$ 를 사용하여 구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경북도 전체평균과 유형별 평균을 구하면 된다.